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6, No.6 (August 2006) pp.45-57

국내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현황 조사 분석

박 혜 원* · 류 은 정** · 배 현 숙***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Design of Dementia Patient's Clothes in Domestic

Hye-Won Park* · Eun-Jeong Ryou** · Hyun-Sook Ba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6. 3. 17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the present condition on dementia patients clothes design including shapes, colors, construction and details in domestic. This research was for confirming the present problems, suggestions, and basic informations for development dementia patients clothes proto-types.

The research methods and process were as follows;

1. The total 20 institutes (5 dementia specialty hospitals, 3 the senior hospitals and 11 nursing care centers) were researched during from June to August, 2005 by trained researchers who had experiences researches.
2. The total 30 nurses and care-givers were interviewed for find the present problems related the dementia patients clothes.
3. The total 39 suits for dementia patients clothes were collected and the design analysed such like shapes, colors, constructions and details by taking pictures and drawing flat works.
4. The present condition about the clothes and problems were found and suggest new ideas.

The results were belows;

1. The most of institutes of domestic area had two piece type like general hospital patients' clothes for dementia patients clothes. It means there are no concerning now for old dementia patients.
2. The white colors were firstly used as fabric ground and secondly pale tone or pastel tone colors were used The blue and pink were used as pattern colors. The pattern colors were usually moderate tones.
3. The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s and details were round neckline, buttons, full-length sleeves, straight pants, ankle length pants.
4. New functional fabrics and designs for emotional satisfaction were demanded for dementia patients.

Key words: dementia patients(치매 환자), 치매 환자복(dementia patients clothes), 환자복 디자인(patients clothe design), 노인병원복(senior hospital clothes), 요양원복(nursing care center clothes)

Corresponding Author: Hye-Won Park, E-mail: hwpark@changwon.ac.kr
본 연구는 2005년도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사업(R01-2005-000-10143-0)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Ⅰ. 서론

세계의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의학의 발달, 국민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의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노년층의 확대로 인해 노인성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국내 전국 노인인구는 약 400만 명이며 이 중 치매 노인 수는 약 33만 명(8.3%)으로 요양서비스 약 2만 명, 재가노인복지시설 3만 여명으로 추정된다[1]. 세계보건기구(WHO)는 21세기의 건강 목표의 중요한 부분으로 노인에 대한 의료를 강조하였고, 우리나라도 정부는 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부터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2].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차원뿐 아니라 생활과학연구에서도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의료진 중심의 체제에서 환자 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질병치료의 목적 뿐 아니라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요청을 받아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성 치매의 경우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생활지도원[3]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질병이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약 50~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혈관성 치매가 20~30%를 차지하며 나머지 10~30%는 기타 원인에 대한 치매라고 보면 된다[4]. 노인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성치매는 노인에게 기억력과 아울러 다른 지적 능력의 감퇴가 오는 것을 일컬으며, 치매는 나이가 들면 필수 불가결하게 동반되는 상태라는 개념에서부터 발전되어 현재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오는 기억력 및 정신기능의 감퇴와 구별되는 특별한 질병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치매의 증상은 ①직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기억력 장애 ②친숙하던 작업수행 능력의 저하 ③언어장애 ④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orientation) 장애 ⑤시공간 기능장애 ⑥망상 ⑦기분 또는 행동의 변화 ⑧ 성격의 변화 등이 있다[5].

이러한 노인성치매의 증상에 따라서 초기의 치매 노인은 일반 노인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는 큰 장애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6]. 따라서 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평상복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병이 악화 되면 일반 평상복으로는 생활이 어렵게 되고 나아가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서 병원이나 요양원의 환자복을 착용하게 된다. 따라서 치매 노인 환자의 일상적 행동에 어려움이 없고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복 뿐 아니라 의료진, 간호사, 간병인, 가족들의 치료와 편의를 돕는 복합 기능복이 요구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의류학 분야에서는 노인의 체형과 의복을 연구하거나 일반 환자복, 소아 환자복 개발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특수복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선행연구로는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홍나영[7]의 연구, 침상 생활 노인에 대한 문은희[8]의 연구와 치매환자복 유형 연구로 박혜원, 배현숙, 류은정[9]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노인성 치매 환자복의 디자인 연구는 현재까지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기능적, 심리적,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치매환자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재 국내의 치매병원, 노인병원, 요양원의 치매환자복 착용실태를 의복 디자인 시각에서 연구하여 국내 치매환자복의 디자인 현황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내용으로는 전국의 치매 전문병원과 노인전문 병원 및 요양원 2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환자복을 수집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간병인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수집된 환자복은 유형별, 색상 및 문양별, 디자인별, 구성적 특성별 등으로 분류하여 디자인 현황을 조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성 치매와 사회 환경적 치료의 접근

치매의 초기에는 일시적 기억력 장애를 볼 수 있으며 건망증의 증세가 잦아지거나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중기에 이르면 이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읽기나 쓰기, 장소 알아보기, 단추 잠그기, 등과 같은 단순한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말기에는 대소변을 가리기 어렵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며 예측 불허의 행동이 나타난다. 망상이나 환각으로 인한 행동의 장애로부터 의심증,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숨기는 일, 옷을 찢거나 벗어 던지는 일, 단추를 깨물어 먹는 등 충동적 행동이 일어난다. 신체적 상해를 입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장애는 비교적 후기에 나타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환자는 보행의 장애로 주로 의자와 침대에서 지내게 되며 근육 경직과 요실금 또는 변실금이 빈번해진다.[10]

치매의 치료법으로는 크게 의학적 치료와 사회 환경적 치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치매는 특성상 비가역적이고 명확한 병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인적 치료가 어려우므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11]. 치매의 의학적 치료로는 약물치료를 들 수 있는데 인지기능 개선제와 우울, 불안,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조절을 위한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

치매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일단 치매 증상이 보이면 두뇌활동의 촉진, 좌우손발을 균형 있게 사용하여 뇌를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술이나 취미활동과 같은 사회 환경적 치료는 긴장과 이완을 반복시키고 회상이나 무기력을 감소시키며 심상을 표출하고 시공간개념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데 유익하다[12]. 정서적 프로그램을 통한 치매 환자들의 우울의 감소와 인지기능의 감소율을 낮추는 것은 음악, 원예치료가 효과적이며 일상수행능력의 증가는 음악요법이, 사회적 행동의 증가와 정서적 위축의 감소는 음악과 미술요법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13]. 이처럼 치매환자에게서 정서적 위축과 표정이 살아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좋은 척도일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적당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자극을 통해 의학적 치료 이외의 정서적 치료와 삶의 향상이 있을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치매노인의 정서적 치료에 음악, 미술, 원예 등이 활용[14]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환경적 치료에 있어 최근 주목을 끄는 것이 색채치료이다. 색광치료기를 이용한 색광 요법은 자연광에 가까운 광안과 11가지 색상의 필터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눈에 조사시킴으로써 생체기능의 균형을 회복시키고자 고안된 치료방법이다[15]. 임상적 치료에서 특정 색채를 가진 광선의 효과를 이용하는 치료법은 색상과 연관된 심리사회적 주체를 환자의 심리적 문제 진단과 치료에 직접 이용하며, 정신치료를 병행하는 바스케스 스티븐(Vazquez Steven)[16]의 치료법이다. 이로써 자율신경계의 균형의 문제로 오는 문제들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고, 뇌의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의복과 색채와 관련된 정서적, 심리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의복의 색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색채를 심리학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떤 감정을 유발 시킨다. 의복의 색채가 착용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생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SD법, 뇌파, 심전의 스펙트럼 해석 결과에서 얻어진 LF/HF 성분은 생리적인 실험과 심리적인 실험을 대응시킴으로써 α파 함유율은 쾌적성 인자에 관여한다[17]고 했다.

이처럼 의복의 색은 착용자에게 감각, 감정, 정서의 3단계로 나타내어지며 색은 사람의 느낌이나 기분, 행동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반응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했다. 따라서 일반인이 아닌 환자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색과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6년 NHK에서 방영된 〈치매와 싸운다 : 움직임이 왕성한 뇌가 잠을 잘 때〉에서는 치매에 걸린 한 남성의 뇌를 검사하였고, 우뇌가 수축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수축된 우뇌를 활발히 하기 위해 끊임없는 사회 환경적 자극, 특히 색과 손놀림

을 응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옷이란 인간이 태어나 첫 사회를 접하면서부터 죽음에 이를 때 까지 인간의 몸과 항상 함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서의 의복을 활용한다면 인간의 정서와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억을 회상시키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의상 치료(fashion therapy)의 개념이다.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 까지 제2의 피부로 함께하는 의복이 가지는 심리적 작용과 의복은 색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치매 노인을 위한 사회 환경적 치료요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신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상치료 효과는 여러 학자(Horn & Gurel, 이인자, 강혜원)에 의해 정의 되었듯이 의복을 중심으로 인체에 부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여 외모를 개선시킴으로써 자기 존중감의 향상과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치료 및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정의 할 수 있다[18].

따라서 약물치료 뿐 아니라 음악, 미술, 원예 치료와 함께 의복을 통한 색채나 의복 디자인을 통한 치료 또한 사회 환경적 치료의 접근으로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근거를 통해 치매환자복은 기능성, 관리성 뿐 아니라 디자인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환자복 디자인 연구 동향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있으나, 치매 환자복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 환자복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환자복 선행 연구에서 보면 환자복은 넓은 의미에서 환자가 입는 의류로 병원에서 준비 하고 착용시키고 있는 상태로[19] 체온조절, 세균방어, 신체 활동에 끼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착•탈이 쉬워야한다[20]. 환자복은 환자의 입원생활과 의료자의 간호 활동 및 치료 활동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하므로 환자복의 형태는 입고 벗기 쉽고 신체의 움직임을 억제하지 않으며, 체위 변환을 않는 단순한 디자인 이어야한다[21]. 환자복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을 제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상의와 원피스의 경우 트임을 앞단과 어깨에서 소매부리까지 준 것이 편리하다고 하였으며, 상의 여밈 방법은 스냅이 가장 편리하다고 하였다. 하의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자인으로 양옆 솔기에 트임을 준 형태와 오른쪽 옆에 트임을 준 형태, 그리고 유아 환자복을 위해서는 밑아래에 트임을 준 형태를 제시 하였다[22]. 환자복의 소재는 섬유의 흡수성과 의복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의 의복은 피부로부터의 배뇨물, 흡착, 요실금 처리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생리적 쾌적성과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경희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복의 색에서는 환자들은 푸른색 계통을 원하고 있다[23]. 환자복은 산뜻함과 안정감, 희망을 줄 수 있는 푸른색 계통이나 피부색을 밝게 보이게 하는 분홍색 계열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환자복이나 남녀공용 환자복, 산부인과 환자복, 소아용 환자복 등에 대한 환자복의 선행 연구는 되어져 있으나, 국내 치매환자만을 위한 전용 환자복은 거의 없고 일반병원환자와 동일한 환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자를 위한 환자중심의 의복이 아니라 관리차원이 우선되어 치매 환자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 된다. 디자인은 인지능력이 상실된 치매환자의 경우도 인간의 본능인 장식적, 미적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환자복이 개발된다면 치매환자의 임상환경 개선과 환자자신의 정서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치매환자에 대한 색채치료(color therapy)나 의상치료(fashion therapy)가 사회환경적 치료의 보조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및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새로운 치매 환자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내의 치매 환자복 디자인 현황

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 전문시설의 착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치매 전문병원 5곳과 노인전문 병원 3곳 및 무료 전문요양원 11개소 유료 전문요양원 1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환자복의 착용실태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해당 시설의 간호사, 간병인, 환자복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하였으며, 환자복이 개선되어야 할 점과 평소 환자의 수발을 들면서 의복과 관련하여 힘든 점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셋째, 치매환자들의 의복착용 모습을 관찰하고 현재 사용 중인 환자복을 수집하여 직접 촬영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도식화 작업을 통해 평면화 시킨 후 유형별, 아이템별, 성별, 사이즈별, 계절별로 분류 분석하였고 디자인 부분에서 형태, 색상 및 무늬, 구성특징 및 디테일 등을 기준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류 및 분석은 의류학과 교수 3인과 의류학전공 석사 이상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넷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치매환자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시기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4]에 등록된 치매전문 병원 및 노인병원, 전문요양 시설 중에서 소규모인 곳을 제외하고 전국적인 분포가 되도록 서울 경기 지역 9개소, 경상남북도 7개소, 전라남북도 2개소, 충청도 2개소 등 총 20개소를 선정 하였다. 치매환자복의 착용실태조사는 2005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20개소의 치매 전문병원 5곳과 노인전문병원 3곳, 전문요양병원 12곳을 직접 방문하였다(표 1). 방문한 조사대상 시설의 환자복 39개를 수집하였고, 탈색과 손상이 심해 분석이 어려운 환자복을 제외한 32벌을 분석 하였다. 또한 병원이나 요양원 환자복 담당자와 간호사, 간병인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자유 면담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치매 환자복 유형 및 형태특성

〈표 1〉 조사 대상 시설의 특성

조사대상 유형(시설수)		소재지	규모(병상 수)	면담자
치매전문 병원(5)	D카톨릭	경북	146	생활지도원, 간호사
	G치매센터	경북	75	간호사
	J치매센터	경기도	174	간호사
	I노인치매	경기도	132	간호사
	S치매센터	충청도	52	간호사, 간병인
노인전문 병원(3)	G노인병원	경북	190	간호사, 관리과직원
	Y노인전문	경기도	259	간호사
	G노인전문	전남	82	간호사
전문요양원(무료:11)	C요양병원	경남	150	간호사
	S요양원,	경남	110	간호사, 생활지도원
	M요양원	경남	119/150	간호사
	G요양원	경남	135	간호사, 관리직원
	Y요양원	인천	180	간호사, 생활지도원
	C치매요양	충남	90	간호사
	G노인요양	경기도	174	간호사
	A노인요양	경기도	75	의료재활과 직원
	S노인요양	경기도	120	간호사
	J노인복지관	서울	260	간호사
	G치매요양	광주	200	간호사
전문요양원(유료:1)	Y요양센타	인천	134/160	구매과직원, 간호사

20개의 조사대상에서 수거한 환자복 32벌을 치매 환자복 유형에 따라 일반환자복과 와상환자복, 사이즈별, 남녀구분별, 계절별(하절과 동절). 등으로 분류했다. 치매 환자의 일반환자복은 일반 병원 환자들이 착용하는 형태의 투피스형태가 대부분이었고, 와상환자복에서는 우주복 스타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피스 스타일, 투피스 스타일이 있었다. 사이즈는 S, M, L로 구분되는 경우가 12곳이었으며 L사이즈 하나로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남녀구분에서는 9곳만이 색상이나 문양으로 구분하고 11곳은 구분되어있지 않았다. 하절과 동절기에 따라 구분하여 환자복을 사용하는 경우는 8곳이었다. 치매환자복 유형 현황 분류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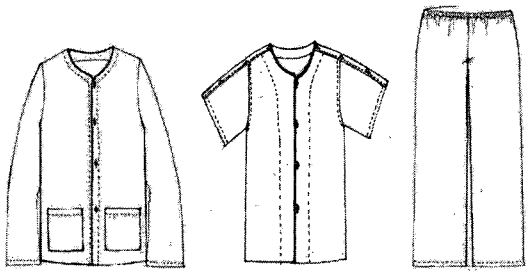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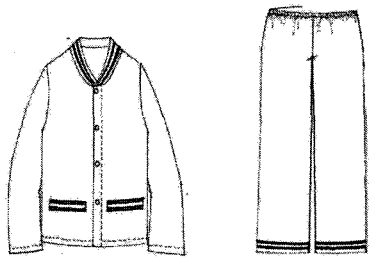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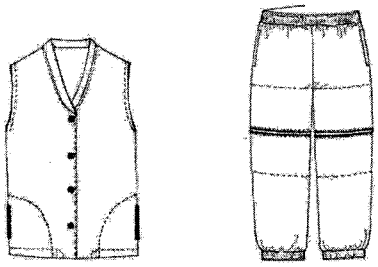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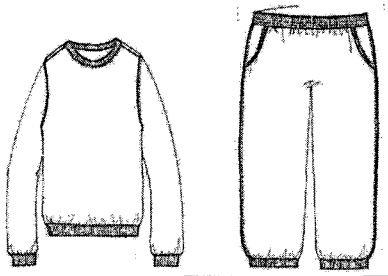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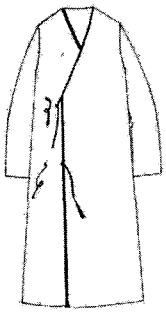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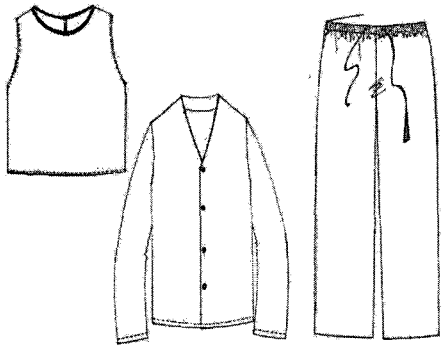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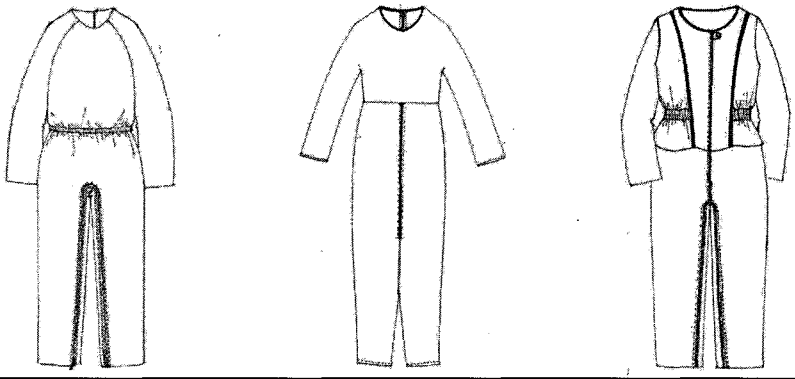
치매환자복 유형분류 결과, 치매전문병원 5곳에서는 일반 환자복과 와상환자복의 구분이 없는 투피스 형태가 사용되고 있었다.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은 총 20개의 조사 대상 중 9곳이었다. 노인전문 병원 3곳은 남녀의 구분을 색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전문 요양병원12곳에서는 일반 환자복은 투피스형과 트레이닝 형태의 환자복을 사용하여 병원보다 자유로운 사용현황을 보였다. 와상환자복은 전문요양병원 중 6곳에서 우주복, 2곳에서 원피스를 착용하였으며 노인전문 병원 1곳에서는 어깨에 여밈이 있는 투피스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이즈는 S, M, L 의 세가지 체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 M, L, XL,과 L, XL, XXL 등이 있었다. 규격화된 사이즈가 없어 큰 사이즈는 남자 환자가, 작은 사이즈나, 세탁시 줄어든 환자복은 여자 환자가 입는 실정이었다. 계절별에서는 하·동 절기에 모두 긴팔을 착용하거나, 하절기는 7부 소매, 동절기는 트레이닝복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하절에는 면T를 착용하거나, 동절기에는 스웨터나 카디건,

〈표 2〉 치매환자복 유형별 현황분류

병원유형		일반환자복	와상환자복	사이즈	남녀구분	하절	동절	수집(벌)
치매 전문 병원	D카톨릭	투피스(2)		S,M,L		긴팔소매		2
	G치매센터	투피스(1)		S,M,L		면T	긴팔소매	1
	J치매센터	투피스(1)		M,L,XL	O	긴팔소매		1
	I노인치매	투피스(1)		M,L		긴팔소매		1
	S치매센터	투피스(0)		S,M,L	O	7부소매	트레이닝	0
노인 전문 병원	G노인병원	투피스(1)		S,M,L		긴팔소매		1
	G노인전문	투피스(1)		S,M,XL	O	긴팔소매		1
	Y노인전문	투피스(1)	어깨여밈 투피스(1)	S,M,L	O	면T	7,8부소매	2
전문 요양 병원	C요양병원	투피스(1)	원피스(1)	L		긴팔소매		2
	S요양원	생활한복 투피스(1), 트레이닝복(1) 조끼형 투피스(1)	우주복(1)	L,XL,XXL		면T, 모시바지	트레이닝 스웨터	4
	M요양원	투피스(3)	우주복(1)	S,M,L	O	짧은소매	카디건,조끼	4
	G요양원	투피스(1)		S,M,L		긴팔소매		1
	Y요양원	투피스(1)	우주복(1)	L,XL,XXL	O	긴팔소매		2
	Y요양센터	투피스(1)		S,M,L,XL	O	면T	긴팔소매	1
	G노인요양	투피스(1)	우주복(1)	SM,L,XL	O	긴팔소매		2
	A노인요양	우주복(1)		S,M,L	O	긴팔소매		1
	S노인요양	쓰리피스 투피스(1)	우주복(1)	S,M,L		긴팔소매	와상+조끼	2
	J노인복지관	투피스(1)		M,L,XL		반팔	내의, 점퍼	1
	G치매요양	생활한복 투피스(1)		S,M,L		7,8부 소매		1
	C치매요양	투피스(1)	원피스(1)	L,XL,XXL		긴팔소매		2

〈표 3〉 치매 환자복 형태 특성

디자인 유형	도식화(의복별수)	
투피스 형태 (23)	일반환자복 투피스+어깨여밈 투피스(18+1) 	선 장식을 응용한 생활한복 스타일(2) 
	조끼를 활용 투피스 스타일(1) 	트레이닝복 스타일 (1) 
원피스 형태 (3)	원피스 스타일(2) 	쓰리피스 스타일(1) 
우주복 형태 (6)	우주복 스타일(6) 	

조끼를 활용하거나 환자복속에 내의를 착용 하였다.

수집된 32벌의 치매 환자복의 형태 및 구성 특성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도식화로 나타내어 분류하였다. 투피스형태의 일반 환자복스타일(18벌), 어깨여밈 스타일(1벌), 선 장식을 활용한 생활한복 스타일(2벌), 조끼활용 스타일(1벌), 트레이닝복 스타일(1벌), 쓰리피스 스타일(1벌)이 있고, 와상치매환자의 경우는 우주복형이(6벌), 원피스형(2벌)이 있다. 치매환자복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형태 특성 분류는 (표 3)과 같다.

2. 치매 환자복의 색상 및 문양 실태

치매 전문병원은 환자복의 바탕색상으로 주황색(2)과 흰색(3)을 사용되고 있으며, 색상톤은 중간(3)과 옅은색(2)이었다. 문양은 없는 곳(1), 꽃문양(1), 체크(2), 병원로고(1)를 사용하였다.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환자복의 바탕색상은 중간톤의 분홍색(1)과 흰색바탕(2)이었고, G노인전문병원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추상적인 느낌의 변형 스트라이프(일명 미소니 패턴)와 같은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고 있었다. 전문요양병원에서는 바탕색상이 흰색

〈표 4〉 환자복의 바탕색과 문양의 색상 톤

병원유형		바탕색상							문양색상						바탕색상톤			문양색상 톤			문양
		B	G	P	O	Y	W	기타	B	G	P	O	Y	기타	짙은	중간	옅은	짙은	중간	옅은	
치매전문병원	D카톨릭(2)				O		O					O				O	O		O		체크
	G치매센터(1)				O											O					
	J치매센터(1)						O		O				O				O			O	꽃
	I노인치매(1)						O		O							O			O		체크, 병원로고
	S치매센터(0)	수거하지 못함.																			
노인전문	G노인병원(1)						O		O		O						O		O		줄, 도형
	G노인전문(1)							O						O		O			O		변형줄무늬 (미소니 패턴)
	Y노인전문(2)			O			O		O		O					O	O		O		꽃
전문요양병원	C요양병원(2)	O					O		O							O	O		O		점, 병원로고
	S요양원(4)	O		O		O	O		O		O					O	O		O		꽃
																O	O				
	M요양원(4)	O		O	O		O								O	O					
															O	O					
	G요양원(1)						O		O								O		O		점, 병원로고
	Y요양원(2)						O				O	O				O			O		
							O										O				
	Y요양센터(1)						O			O			O				O		O		줄, 도형
	G노인요양(2)						O				O		O				O		O		도형, 달, 꽃
							O										O				
	A노인요양(1)						O				O		O	O			O		O		기하학, 버섯
	S노인요양(2)				O		O							O		O	O		O		꽃, 직사각
	J노인복지(1)						O				O		O			O		O			직사각, 별
	G치매요양(1)			O												O					
	C치매요양(2)						O					O				O			O		줄, 병원로고
							O										O				
합 계		3	0	4	4	1	19	1	7	1	7	3	5	1	2	15	15	1	14	1	

(B : Blue, G : Green, P : Purple, O : Orange , Y : Yellow , W : White)

(1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옅은 푸른색(3)순으로 나타났다. 문양은 중간톤의 분홍색, 푸른색, 노란색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양은 도형이나 꽃, 줄무늬 그리고 병원로고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바탕색상 톤은 옅은 색과 중간색이 많았으며, 문양색상 톤은 중간색이 많았다. 결국 치매환자를 위한 환자복의 바탕색으로 흰색(19)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홍색(4)과 오렌지(4)색이 사용되고 있었다. 문양의 색상으로는 분홍색(7), 푸른색(7)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노란색이었다. 문양색상 톤에서는 중간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문양이 없는 곳이 9곳이었고, 그 다음으로 병원로고, 점 문양과 줄 문양, 자연물에서 꽃이나 버섯, 기하학적인 도형무늬, 변형줄무늬(미소니 패턴)가 사용되고 있었다(표 4).

3. 구성적 특성 및 세부 디자인 현황

상의에서 라운드 네크라인과 V네크라인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밈 부분에서는 한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단추(23)가 사용되고 있었다. 소매의 길이는 주로 10부소매(19)가 많았다. 상의의 포켓은 대부분이 오른쪽 아래와 왼쪽아래에 1개씩 총2개의 형태(13)가 가장 많았다. 하의는 일자바지(24)가 대부분이었고, 바지 길이는 7부(4)와 발등의 9부(20)로 바

〈표 5〉 치매 환자복 구성적 특성 및 디자인 현황

병원유형		디자인형태(상의)						디자인형태(하의)					와상환자복								
		라운드넥	V넥	단추	소매 7부	소매 10부	포켓(2개)	일자바지	길이 7부	길이 발등 9부	여밈 끈	여밈 고무줄	원피스	우주복	뒤트임	라운드넥	V넥	여밈 지퍼	여밈 끈	밑트임	포켓
치매전문병원	D카톨릭		O	O		O		O		O		O									
			O	O	O			O	O			O									
	G치매센터	O		O	O			O		O		O	(별도의 와상환자복) 없음								
	J치매센터	O		O		O		O		O		O									
	I노인치매	O		O		O	O	O		O		O									
	S치매센터	수거 하지 못함																			
노인전문	G노인병원		O	O		O	O	O		O		O									
	G노인전문		O	O		O		O		O		O									
	Y노인전문	O		O	O			O		O		O									
		O		O		O		O		O	O										
요양병원	C요양병원	O		O		O	O	O		O		O	O				O		O		
	S요양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O		O		O		O									
			O	O	없음			O	O			O									
	M요양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G요양원		O	O		O	O	O		O		O	없음								
	Y요양원	O		O		O	O	O		O		O		O	O	O		O		O	
	Y요양센터	O		O		O	O	O		O		O	없음								
	G노인요양	O		O		O	O	O		O		O		O	O	O		O		O	
	A노인요양													O	O	O		O		O	
	S노인요양		O	O		O		O		O	O	O		O		O		O		O	
	J노인복지	O		O		O	O	O		O		O	없음								
	G치매요양		O	O		O	O	O		O		O									
	C치매요양		O	O	O	O		O	O			O	O		O				O		
합 계		12	12	23	5	19	13	24	4	20	3	23	2	6	6	5	2	6	2	6	

(* 트레이닝복 스타일)

지의 여밈부분은 고무줄(23)과 끈여밈(3)이 사용되고 이었다. 와상환자복은 주로 요양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우주복 형태(6), 원피스형태(2)이며 앞트임 보다 뒤트임이 많고, 여밈에서는 지퍼 사용(6), 끈(2)이 사용되었다. 또한 와상 환자복에는 밑트임(6)이 있었다(표 5).

결과적으로 치매환자복 디자인분석에서 볼 때 상의는 대부분 라운드 네크라인, V네크라인으로 일반 환자복과 비슷하였다. 상의의 여밈은 단추로 되어 있고 주머니가 2개가 있는 것이 많았다. 소매길이는 10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는 허리 여밈이 대부분 고무줄로 되어있으며, 끈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 형태도 있었다. 바지의 경우 일자바지의 형태로 되어 있었고, 바지 길이는 7부와 발등까지의 9부 길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상환자복의 형태에서는 원피스와 우주복 중 우주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상환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므로 간병인의 도움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 누워 있는 상태로 의복을 갈아 입혀야 하기 때문에 여밈이 주로 지퍼로 되어있었다. 바지 밑 아랫부분이 트여 있어 기저귀를 갈 때 착·탈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와상환자복에는 포켓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면담 조사에 따른 디자인 문제점

병원 및 요양원의·간호사, 생활지도원 및 의류담당직원 등 30명들과의 면담을 통해 치매환자복 디자인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표 6). 사이즈, 색상이 다양하지 않고, 소매와 바지 길이가 길며, 와상환자복의 원피스나 우주복의 여밈이 끈이나 지퍼로 되어 있어 피부에 베기기 때문에 불편한 것으로 지적 되었다. 또한 입고 벗기기에 용이 하지 않으며, 문양이 없거나 병원로고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심미성이 떨어지고 병원세탁은 대개 고열과 소독약품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탁 후에는 수축이 심하다. 따라서 수축되어 사이즈가 작아진 경우에는 주로 여성 환자들 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착·탈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합한 소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 구분 및 사이즈별로 색상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밝은 색의 파스텔 톤의 색상을 사용하여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깔끔한 색상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상의에서는 소매길이에 단추를 달아 조절이 가능하게 하거나, 하의부분에서는 통이 넓어 노인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므로 통을 조금 줄여야 할 것이다. 허리 조절에서 끈, 단추를 달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와상환자의 우주복에서는 착·탈에 용이하고 환자의 피부에 무리가 가는 지퍼를 대신할 여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양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정서적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소재는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고, 실용적이며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표 6).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복의 현황을 조사하여 유형별, 형태특성 및 색상, 문양, 디자인, 구성적 특성 등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치매 환자복 유형 및 형태특성에서는 일반 환자복인 투피스 형태가 많이 나타났고, 와상 환자복은 원피스와 우주복 형태로 나타났으며, 동절기 옷으로는 긴팔 소매에 내의류나, 기타 의류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복 유형별 결과에서는 주로 투피스형태에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일반 병원복과 비슷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이즈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남녀 구분이 없었다.

치매 환자복 색상 및 문양에 있어서 대부분 환자들이 노인인 치매 환자들의 환자복으로는 적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바탕색상에서는 흰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바탕색상 톤으로는 중간색과 옅은색 톤이 나타났다. 문양색상은 분홍색과 푸른색으로 나타났고, 문양색상 톤은 중간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양은 직물이 생산될 때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양들이거나 병원의 로고 등 치매가 아닌 일반환자들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치매환자의 의복을 통한 사회 환경적 치료 접근

〈표 6〉 치매환자복 디자인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분	디자인 문제점		디자인 개발 시 고려사항
상의	· 남녀구분이 없음. · 사이즈와 색상이 다양하지 못함. · 소매길이가 김. · 네크라인 - 목선이 많이 파여 있음 · 칼라가 없음.	⇒	· 색상에서 남녀 구분을 시킬 것. · 파스텔 계통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할 것. · 사이즈는 다양화가 필요. · 노인의 체형을 고려하여 목선 형태와 칼라의 부착 여부를 고려.
하의	· 바지 부리가 너무 넓고, 길이가 김. · 허리 고무줄로 허리 조절이 안 됨. · 밑위길이가 짧음.	⇒	· 바지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단추를 달아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함. · 밑아래에 삼각대형을 달아 덧댐. · 허리조절이 가능하게 허리밴드에 단추를 달아 조절. · 일자바지형태에서 발목부분이 좁아지는 형태로의 개선이 필요.
와상환자복 (원피스)	· 사이즈와 색상이 다양하지 않음. · 여밈 부분에서 끈으로 조절되어 와상 환자 몸에 베김.	⇒	· 색상을 고려해야 함. · 여밈은 벨크로, 단추 등의 사용을 고려.
우주복	· 입고 벗기기에 불편함. · 지퍼사용이 환자에게 불편함.	⇒	· 입고 벗기기에 용이한 것(벨크로나 어깨 부분에 단추로 고정) · 벨크로의 경우 세탁 문제 고려해야 함
색상	· 색상이 다양하지 않음. · 대부분 흰색에 병원로고로 되어있음. · 여성 환자는 핑크를 좋아함.	⇒	· 밝은 색상인 파스텔이나 산뜻하고 안정감이 생기는 색상으로 고려함. · 푸른색이나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등의 색상으로 미적인 면을 강조함. · 깔끔하고, 차가워 보이지 않은 색을 선택함. · 환자대상 색채조사 필요함. · 2가지 이상의 색채 조화를 고려
문양	· 문양이 대부분 없거나, 병원로고나 줄 무늬가 대부분임.	⇒	· 디자인에 따라 자연적인 무늬(꽃, 식물, 동물)를 사용하여 시각을 통한 두뇌 활동 변화 고려. · 기하적인무늬나, 캐릭터 등, 환자에게 생동감 있는 문양도 고려.
사이즈	·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음. · 큰 사이즈는 남자가 작은 사이즈는 여자가 착용. · 여환자의 크기가 잘 맞지 않음. · 세탁 할수록 수축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심하게 변함.	⇒	·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고 규격화 함. · 관리하기 용이 하도록 사이즈별 색상을 달리함.
소재	· 면은 세탁 후 수축이 심하고 뻣뻣함. · 삶아도 얼룩이 남아 있음. · 잦은 세탁과 삶음으로 빨리 해짐.	⇒	· 줄지 않는 소재 · 부드러운 소재 · 신축성이 있고, 실용적인 것. · 세탁 내구성이 요구 됨.
기타	· 추위를 많이 느낌. · 겉옷의 필요성이 있음 · 잘 미끄러짐.	⇒	· 다양한 아이템 개발이 요구 됨. · 조끼나 카디건 등이 필요. · 미끄러지 않는 양말 필요.

의 차원에서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성적 특성 및 세부디자인에서는 네크라인의 경우 라운드와 V형이었고, 대부분 목주위의 사이즈가 커서 노인환자들을 더욱 초라해 보이게 하는 부분

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에게는 시각적, 미적인 요소가 부여된 칼라의 부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밈 부분에서는 단추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소매길이는 10부 소매가 가장 많았다. 상의 포켓은 오른쪽과 왼쪽 아래에 주머니 2개 있는 것이 가장 많았다. 하의는 일자바지 형태의 길이가 9부정도가 많았는데 노인의 체형을 고려해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와상 환자복에서는 원피스와 우주복 형태가 있었고, 앞트임보다 뒤트임이 많고, 여밈에서는 지퍼 사용이 대부분 이었다. 지퍼는 와상환자의 피부상태를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

면담 조사에서는 디자인의 개선을 많이 요구 하였다. 투피스 환자복에서는 색상과 사이즈의 다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허리조절과 바지 길이 조절에서 단추를 달아 길이를 조절 가능하게 하고, 와상 환자복의 원피스 부분에서 여밈을 벨크로나 기타 다양한 여밈을 활용하여 입고 벗기 쉽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색상에서는 환자대상 선호조사나 색채치료의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색상, 톤을 고려하여 심미적 · 심리적 요소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 일반 환자들이 착용하는 병원로고, 줄무늬나 작은 문양들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노인 치매 환자들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문양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온이나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국내 치매환자복 대부분의 경우 일반병원환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자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는 환자를 위한 환자중심의 의복이 아니라 관리차원이 우선되어 환자의 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환자의 편리와 정서적 만족을 주는 디자인은 매우 열악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능력이 상실된 치매환자의 경우도 장식적, 미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환자복이 개발된다면 치매환자의 임상 환경 개선과 환자자신의 정서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의류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 환경적 치료까지로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치매뉴스 (2005). '치매노인 통계:. 한국치매가족협회. www. alssa.or.kr
2) 보건복지부 (2006). www.mohw.go.kr
3) 간병인, 병 수발을 드는 사람을 통칭하는 보건복지부 규정 용어.
4) 김성윤 (2002). 치매 진단 알고리즘. 대한의사협회 제30차 종합학술대회
5) 앞 글, pp. 4-5.
6) 노인치매, http://www.reportworld.co.kr
7) 홍나영 (2000).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기능성 의복 연구-서울, 경인 지역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복식문화학회지, 8(6), pp. 899~914.
8) 문은희 (2003). 침상노인 환자복의 현황 분석 및 디자인 제안.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1.
9) 박혜원, 배현숙, 류은정 (2005). 국내 치매 환자복 착용 조사를 통한 디자인 유형 분류.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추계발표.
10) 김동연, 윤종호. 집단 미술치료와 치매노인의 행동 및 정서. 재활심리연구, 9(1), pp. 144-145.
11) 이정희 (1997). 치매환자 간호-진단과 치료적 접근.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재.
12) 김부영 (2001). 치매 간호중재로 실시한 원예 · 음악 · 미술요법의 효과 비교. 노인간호학회 원예학술발표 논문.
13) 앞 글, pp. 61-62.
14) 김동현 (1999). 신현옥, 치매노인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제6회 한국미술치료학회 국제학술대회, pp. 141-160.
김영숙 (1997). 치매노인의 심리사회적 재활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3), pp. 53-69.
Kathleen B. Kahn-Denis (1997). Therapy with Geriatric Dementia Clients, *Art Therapy: Journal of American Art Therapy, 14*(3), pp. 194-199.
15) 박은숙 (2003). color therapy의 임상적 적용과 효과. 가정의학학회지, 24, 강남성모병원 가정의학과, pp. 225~231.
16) Vazquez Steven, PhD. (1996). *Brief Strobic Phototherapy: Synthesis of the future in Light years Ahead: The Illustrated Guide to Full Spectrum and Colored Light in Mind body Healing Tiburon.* CA: Light Year Ahead Productions, pp. 57-100.
17) Yukie Kato, Isami Amemlya, Reiko Hashimoto (2004). 被服の色彩が着用者に及ぼす心理的・生理的影響-SD法, 脳波, 心電に よる 解析. Sugiyama, Jogakuen University.
18) 신현영, 이인자 (2004).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의상치료 효과(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4(7), pp. 1088~1100.
19) 장지혜 (1985). 피복 위생학. 신광 출판사.
20) 윤오섭 (1991). 환경과 인체와 의복. 환경위생학 진로연구사, pp. 390~391.

21) 이순애, 조순길, 이영숙 (1991). 피복과학총론. 서울: 교문사.
22) 양진숙, 김희영 (1990). 환자복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 정맥주사를 요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전주 우석대학교 논문집, 12, pp. 351~366.
23) 이경희 (1997). 병원 환자복의 색에 대한 기호 조사 연구. 의류 직물연구, pp. 21~26.
24) www.mohw.go.kr/index.jsp 2005년 5월 3일.